

철학사

49 데이비드 흄에 대한 반응 (휘튼 대학 아서 흄즈 박사)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토론과 피드백을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 흄의 윤리학을 복습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해 온 18세기 철학자들의 도덕 감각을 소개하는 적절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흄의 윤리학 복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핵심 질문은 도덕이 이성에 기반한 것인가, 감정에 기반한 것인가였습니다.

에 근거한다는 선택지는 존 로크와 케임브리지 플라톤주의자들, 즉 선천적 지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흄의 경우, 문제는 우리가 이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관념 과 사실의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이성은 관념의 관계를 정의하고 윤리적 개념들을 상호 연관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사실 관계에 있어서는 경험적 예측, 결과 예측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그가 공리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핵심은 사실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행동을 취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지 말이죠. 하지만 '현실'에서 '당위'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윤리학 역사상 이 질문을 진정으로 제기한 최초의 인물이 바로 데이비드 흄이라는 점은 그의 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재 -당위' 문제입니다. 이전에는 객관적이고 지적으로 접근 가능한 도덕적 진리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진리들이 그 자체로 당위를 내포하거나, 신의 명령이나 의지에 관한 것이라면 신이 부여한 당위를 나타낸다고 가정 해 왔습니다. 그러나 흄은 그러한 종교적 윤리적 기반 없이, 경험주의자로서 오로지 경험적인 것에서만 윤리적 의무를 도출해냅니다.

이해되지요? '있는 것'에서 '당위'를 어떻게 도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흄 시대부터 20세기 중반을 훨씬 넘어서까지 경험주의적 윤리 이론을 괴롭혀 온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계속 해서 다룰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흄이 말하는 경험주의가 본질적으로 경험 과학의 방법론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것을 뉴턴의 방법으로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18세기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개념이 과학적 사고, 즉 과학적 방법은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지요? 아니면, 원하신다면, 과학이 연구하는 세계, 즉 뉴턴 역학적 우주는 가치 중립적인 세계라는 뜻입니다.

가치 판단이 필요 없는 사실들의 세계. 사실, 뉴턴 역학적 관점에서 볼 때 물질 입자와 맹목적인 힘들이 작용하는 것뿐이라면 자연 세계에는 본질적인 목적이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 중 유신론자들은, 앞서 언급한 라크 데카르트처럼, 자연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방식에 신의 목적이 깃들여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만약 자연의 메커니즘만이 전부라면, 그 세상은 그 자체로 어떤 도덕적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해 되시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가치가 발생하는 유일한 방식은 다른 무언가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도구적 가치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공리주의가 존재하는 것이죠. 당신이 주장하고 가정하는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즉 '당위'를 '있는 그대로'에서 어떻게 도출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도덕적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도덕적 의무의 근원, 즉 무엇이 선한지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는 감정에 의존 해야 합니다. 이성은 물론 이러한 문제들, 특히 대안의 유용성, 즉 효용에 대해 아는 데 기여하지만, 어떤 종류의 도덕적 의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의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림을 기억하시죠?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었을까요?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자비심, 즉 타인에게 좋은 것을 바라는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자비심입니다. 이는 홉스와 같은 사람의 극도의 이기심과는 대조적입니다.

인간에게는 선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선의일까요? 그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선의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선의는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느끼는 기쁨이나 고통, 즉 공감이라는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감은 우리와 힘든 시간을 보내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 실제로 관찰 가능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따라서 공감의 이면에는 상당한 자기 이익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선이라는 감정 자체가 자기 이익으로 환원될 수는 없지만, 자기 이익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기심과 이타심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건 감정, 도덕적 정서, 성찰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생각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생겨납니다. 즉, '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는 ~해야 한다고 느낀다', '나는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와 같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기저에는 자기 이익이라는 감정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흄의 윤리학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에 해당하는 규칙들은, 보시다시피, 그러한 의도에서 비롯되며, 정의는 본질적으로 공리주의적입니다. 그는 그러한 규칙들을 자연법칙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자연법칙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효용을 위해 원하는 종류의 것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잠시 들어보죠. 네? 그는 어디서 그런 '해야 한다'는 말을 얻는 걸까요? 네, 결국 윤리란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행동을 단순히 묘사하는 것 이상이죠. 그건 윤리가 아니에요.

그건 사회학이죠. 아니, 윤리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규범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추구해야 할 선은 무엇인가? 왜 선해야 하는가? 왜 선을 행해야 하는가? 바로 그게 질문입니다.

오래된 질문입니다. 흄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할 내적 충동이 있다고 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위는 자기가 부과하는 것이지만, 흄스는 리바이어던의 상황에서, 당위가 일종의 자기 계약에서 비롯되었지만 결국 리바이어던에 의해 사회적으로 강요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의 명령에 기반한 윤리학에서, 당위는 신이 부여한 신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흄의 윤리적 주관주의에서는 당위가 일종의 자기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윤리적 상대주의자라고 단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심리학의 보편적 공통점은 모든 인간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종류의 자비심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편적으로 동일한 도덕성, 즉 도덕적 의무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보편적으로 비슷한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동정심이라는 감정은 반드시 타인의 고통 때문에 생겨나는 것일까요? 우리 사회에는 타인의 고통을 보며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데이비드, 당신은 타고난 선의가 자신의 쾌락이나 고통과는 전혀 상관없이 순전히 이타적인 사람들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인간 심리에 대한 사실과 다른 관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주장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주장 하시겠습니까? 그의 말인가요? 음, 같은 맥락에서, 그리고 나중에 그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입문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일지도 모르겠네요, 데이브. 다른 학생들이 같은 내용을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셉 버틀러는 윤리적 이기주의, 혹은 심리적 이기주의, 즉 모든 사람이 무엇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견해에 대해 고전적인 반론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반론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는 인간의 행동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의 대답은 그러한 행동들이 자기 자신과 관련될 수는 있지만, 주된 관심사는 자기 이익이 아니라 추구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기주의는 자기중심적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하지만 그 맥락에서 이기주의의 주요 반대자인 버틀러조차도 자기 참조적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것을 허용할 수 있다면 상황이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기주의자는 이렇게 반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관여한 일이 다른 사람들이 잘 지내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끼지 않느냐?" 이해되지요? 네.

당신 말이 맞아요. 아니요. 사람들이 굶주리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훨씬 더 만족스럽고 기쁩니다.

그건 고통스러운 일 이죠 . 그런 현상을 고려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인간의 행동 중에 자기 이익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버틀러는 그런 행동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아시다시피, 이기주의는 자기 이익이 존재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자기 이익이 지배적이고, 최우선적이며, 최종적이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더 생각했던 것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반대의 경우, 즉 너무나 외로워서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 악의적이네요. 네, 악의적이예요. 오.

네, 제 생각엔 흠은 아니라고 주장할 것 같아요. 버틀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말했듯이, 남들이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즐기는 아주 잔인한 인간들도 있지만, 그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선의는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비록 애완견 한 마리 정도일지라도 말이에요. 그런 선의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들에게는 한없이 다정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데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는 갱스터 . 여자친구에게는 아주 다정했던 히틀러. 글썄, 그건 심리학적 사실의 문제지.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18세기 철학자들의 도덕관념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언급한 네 명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사실 훨씬 더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네 사람, 샤프츠베리 백작, 프랜시스 허치슨, 애덤 스미스(바로 『국부론』의 애덤 스미스죠. 그는 에든버러 대학교의 도덕철학 교수였고, 도덕감정론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조셉 버틀러가 있습니다. 조셉 버틀러는 런던 시내의 성공회 목사였는데, 그의 윤리학 저술 대부분은 설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 생각엔 그것들은 설교라기보다는 철학 강의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건 18세기 이야기죠. 좋습니다, 그럼 이 학파, 즉 도덕 감각 철학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데이비드 흘처럼, 그들은 윤리학의 근거 를 인간 심리학, 즉 도덕 심리학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오감 외에도 일종의 도덕 감각, 즉 감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흘 자신도 자신의 경우에 감정을 설명할 때 '도덕적 감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도덕적 감각 철학은 토마스 홉스의 이기주의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것으로 보이며, 그런 점에서 17세기 케임브리지 플라톤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케임브리지 플라톤주의자들은 선천적 관념론을 내세워 기계론적 자연관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영국 성공회 전통의 폭넓은 교파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재하는 보편자, 따라서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윤리적 이상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케임브리지 플라톤주의자들은 토마스 홉스에게 100% 반대했습니다. 홉스 뿐만 아니라 크롬웰 시대에 번성했던 강력한 칼뱅주의에도 반대했습니다.

이는 18세기 도덕 철학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인간 본성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를 가진 강력한 칼뱅주의에 반대했는데, 칼뱅주의는 인간에게는 본래의 선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완전히 이기적이라는 거죠. 문제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기주의 대 이타주의. 대학원 시절에 20세기 초 도덕 감각 철학자들의
후예 중 한 명인 영국인 브로드, 바로 CD 브로드의 강연을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는 이기주의냐 이타주의냐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일종의 이기적 이타주의자인지, 아니면 일종의 이타적 이기주의자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논리는 그에게 너무나 명백해
보이는 것에 호소하는 것이었다. 즉, 우리는 상황을 이해할 때 무엇이
옳은지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도덕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도덕적 감각. 네, 그렇습니다. 브로드 시대에는 그것을 직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이 개념을 계승한 사람들을 윤리적
직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보시다시피, 윤리적 직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브로드도 그중 한 명이었죠.
. 나중에 GE 무어, WD 로스 같은 다른 윤리적 직관주의자들도 만나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이 말하는 도덕 감각이란, 여러분이 예상했듯이, 우리의
도덕적 감수성에 내재된 자연스러운 종류의 자비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이유는 바로 이 도덕 감각, 즉 도덕적 능력 때문입니다. 이 능력
덕분에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덕 능력은 실제로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째, 행동이나 상황의
도덕적 질을 인지하게 해줍니다. 둘째, 그 행동이나 상황을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에 관해 선한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인식,
도덕적 인식, 옳고 그름을 아는 것, 선에 대한 판단, 도덕적 승인, 도덕적
판단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도덕적 동기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도덕적 지식이 거기에서
나오고, 마땅히 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판단 과 동기 모두에서 비롯됩니다.
의무감이나 책임 이라는 개념을 '나는 이것을 해야 한다' 라는 동기, 즉
나를 움직이는 동기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선은 쾌락이나 자기 이익 같은 것으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데이비드. 물론 그것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그런 것들로만 환원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덕 감각은 일종의 독특한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하며, 다른 어떤 인간 능력으로도 환원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이 우리를 창조하신 방식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흄처럼 윤리적 주관주의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에는 유신론적 기반이 있어서 동기와 승인이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이것이 도덕 감각론자들의 전반적인 견해이지만, 그들을 갈라놓는 중요한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도덕 감각이 근본적으로 인지적인 것인지 감정적인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성은 이성의 문제인가, 아니면 감정의 문제인가? 데이비드 흄이 다루었던 바로 그 질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보편적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비인지적인 것, 즉 취향이나 감정의 문제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제가 여기 소개한 샤프츠베리와 허치슨, 그리고 애덤 스미스였습니다. 애덤 스미스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들만큼 완전하고 명확하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스코틀랜드 사실주의 작가인 토머스 리드와 같은 사람들은 그가 지식보다는 감정에 기반한 윤리를 갖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반면에 버틀러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윤리관에서 버틀러와 매우 유사한 스코틀랜드 사실주의 작가인 토머스 리드는 모두 이러한 감각이 인지 능력, 즉 일종의 앎이지 감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쾌락이나 고통과 같은 감정이 아니라 명확한 관념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취향이란 어떤 느낌을 주는 걸까요? 만약 그것이 취향이라면, 좋은 취향이란 무엇일까요? 만족감? 즐거움? 감정적인 측면을 논할 때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이 부분이 그들의 의견 차이를 불러일으킨 문제입니다. 이들 중 특히 흥미로운 인물은 영국 국교회의 주교였던 조셉 버틀러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가 도덕적 감각을 나타내는 데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도덕적 감각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는 이 양심을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그의 주장과 다른 학자들이 다루는 주제들이 어떻게 유사한지 알 수 있습니다. 버틀러에게 양심은 그가 '정신적 성향'이라고 부르는 다양한 특성 중 하나일 뿐입니다.

마음의 성향. 다시 말해, 우리는 특정한 능력과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가 말했듯이, 신이 주신 성향이죠.

이러한 경향들은 그 기능 방식을 통해 도덕적 감각을 제공합니다. 이제,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의 성향은 우선 특정한 정념, 즉 만족에 대한 욕망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배고픔, 성욕, 분노와 관련된 감정, 정서, 욕망들이 생겨납니다. 특정한 대상에 대한 특정한 욕망들, 그리고 자기애에 대한 성향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것은 자기 이익 추구입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자비심, 즉 타인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가 양심이라고 부르는 네 번째 성향이 있습니다.

자기애와 자비심은 우리의 감정을 합리적으로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자기 이익을 위해 과도한 탐닉을 자제하고, 자비심으로 분노를 억제하게 됩니다.

이런 식이죠. 반면에 양심은 자기애와 자비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성향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애와 자비심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감정을 다스리려 애쓰는데, 자기애가 우세해지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아주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버릴 겁니다.

혹은 너무나 이타적이어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바로 그럴 때 양심이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줍니다. 양심은 우리가 올바른 균형점을 찾도록 도와주는 인지적인 측면과, 승인하거나 반대하는 권위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양심의 권위적인 측면에서 비롯되는데, 제 스승님께서 '양심의 가지'라고 부르시던 것입니다. 양심이 당신을 찌르는 거죠.

양심의 가책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데이비드 흄의 이론과 매우 유사한 또 다른 종류의 도덕 심리학입니다. 버틀러의 경우에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도덕 감각의 합리적 차원, 즉 양심이라고 불리는 인지적 차원을 강조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인간의 성향, 즉 마음의 성향, 감정 등이 신의 섭리에 따라 특정한 방식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덕 있는 사람이란 가능한 최선의 방식으로 기능하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기능하는 인간은 덕 있는 인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들리네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선을 행복으로 정의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성적인 존재가 삶 전체에서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삶 전체가 이성애 따라 기능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색채가 느껴지지만, 일종의 도덕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음, 이 정도면 철학자들의 도덕적 감각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철학자들이 많은 연구 대상이었죠.

오늘날 그들의 사상은 흠이나 흠스와 같은 사상가들에 대한 역사적 반발로서, 20세기 윤리적 직관주의를 예견한 사상으로서, 그리고 인지 윤리와 정서적 비인지 윤리에 대한 논쟁을 촉발한 사상으로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에 기반한 윤리, 즉 윤리적 주관주의가 상대적인 윤리가 아닌 보편적인 윤리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흠의 사상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사람들의 사상에서는 더욱 두드러진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양심'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버틀러가 신약성경보다 '양심'이라는 단어에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신약성경에서 '양심'이라는 단어 자체는 히브리어 '시노데시스'(synodesis), 동사 '이데 오'(ideo), 그리고 전치사 '태양'(sun)이 합쳐져 단순히 사물을 함께 보고, 두 가지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프랑스어로 의식은 간단히 말해서 양심입니다. 의식은 곧 양심이죠. 아시다시피, 의식이란 판단을 내리고, 보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사용되는 의미와 상당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양심은 신화에 나오는 피노키오처럼 절대 틀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은 모호하고 매우 부정확할 수 있으며, 정보를 통해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음, 어쨌든 버틀러는 그보다 더 나아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가 여전히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현상이 더 흔하다면, 그 이유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이것들은 도덕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 와 관련된 것입니다 . 만약 이 도덕적 감각이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라면, 즉 이것은 괜찮다, 통과된다, 저것은 끔찍하다, 하지 마라와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라면, 그것은 바로 찬성이나 반대라는 감각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기능하도록 만들어진 방식이 그 명령을 외치는 겁니다. 저는 그가 그렇게 대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게 좀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저는 믿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니면 더 나아가 훨씬 더 많은 청중, 어떤 종류의 청중이라도, 순전히 가학적인 쾌감을 위해 무고한 영아들을 고문하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어머니들을 보는 것을 도덕적으로 용인하는 사람이 있는지 자문해 보세요.

당연히 모든 인간은 누구나 반감을 가질 만한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그러한 심리적 원리에 기인하는 것이죠.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사탄 숭배 관련 부분과 같은 맥락인가요? 네. 그리고 나서 이런 예외적인 경우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들이 선의를 가진 다른 사례들을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버틀러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까요? 오늘날 도덕 심리학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이유 에서든 도덕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 그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도덕적 감수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 어떤 심리적 또는 생물학적 이유 때문일 겁니다, 트로이. 특히 당신처럼 도덕적 논리에 그다지 능숙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내용에서 실질적인, 그러니까 규범적이고 보편적인 윤리를 도출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도덕적 논리에 대해 얼마나 의견 일치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적절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무엇이 관련 있고 무엇이 보편적인지 묻는 다른 질문들과 마찬가지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사례들을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사례에 대해서만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까? 특정 사례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책임 영역 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 예를 들어 살인 금지 규칙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살인 금지 규칙 자체는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아니면 예외가 없는 원칙, 예를 들어 자비의 원칙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칙의 근거가 무엇이든 간에, 이러한 원칙들 중 일부에서는 상대주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덕 감각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명백히 보편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자비와 같은 도덕 원칙들이 그렇습니다.

제한적인 자기 이익과 같은 것이죠. 그것들은 일반적인 규칙을 만들어내는 전반적인 도덕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 자비로운 행위인지는 매우 주관적입니다.

아니요, 윤리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다고 믿는 일을 하고, 진심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무엇이 좋다고 생각하는지는 주관적인 거죠. 아, 네, 하지만 아시다시피 어떤 윤리에서든 무엇이 좋다고 생각하는지는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살인이란 무엇일까요? 닭고기를 먹는 것도 포함될까요? 잔디를 깎는 것도 포함될까요? 아시 겠죠? 아닙니다. 살인을 정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명의 맥락을 고려해 보면, 살인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칙에도 불구하고 레위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외가 허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구체적인 정의의 문제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윤리적 상대주의는 보편적인 원칙이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참고하는 입문서에 나오는 루스 베네딕트의 정의에 따르면, 윤리적 상대주의는 모든 환경 조건이 동일하다는 견해인데, 어떤 윤리학자도 이런 정의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경제 상황, 기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신념과 관습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부적인 신념과 관습이 보편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예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입니다.

보시다시피, 그것은 맥락 등에 따라 달라지는 문화적 문제입니다. 아니, 상대주의자는 이 모든 것이 상대적 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반면에 일부 재건주의자들 처럼 매우 율법주의적인 절대주의자는 모든 것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려고 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성경적 윤리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에서처럼 일반적인 영역에 관해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비극적인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사형제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도덕 감각 철학자들에게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들이 단순히 자비의 전반적인 원칙과 제한된 이기주의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점에서 그들은 상대주의와 결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흠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네, 흠도 그렇습니다.

그가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어쨌든 그는 해냈습니다. 아니, 기독교 윤리에서 모든 것이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 윤리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도덕률을 제한적 절대주의라고 부릅니다. 좋습니다. 도덕 감각 철학에 대해 더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아, 버틀러 같은 사람들은 연구를 진행하면서 일반적인 규칙을 도출하고 그것을 개별 사례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강연을 들었던 CD 브로드의 경우를 보면, 그는 일반적인 원칙들을 염두에 두고 특정 사례를 다루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려 사항들을 검토한 후 의사 결정 과정의 한 단계에 이르면,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자, 이 도덕적 직관 접근법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윤리적 직관주의 또는 도덕 감각 철학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도덕 감각을 통해 전반적인 원칙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 보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한 상황에서 행하는 행동이 도덕 감각에 명백해진다고 보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세기 직관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봅니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전반적인 원칙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도덕적 감각이 중요하다고 생각 하지만, 그들은 개별 사례에 따라서도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20세기 직관주의자로 GE 무어를 언급했는데, 그는 선이라는 개념이 직관적인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그의 원칙입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어에게 있어 그것은 공리주의적 결정입니다. 직관적인 결정이 아니죠.

그게 바로 선을 극대화하는 거죠. 아, 그건 내년에 윤리 이론 수업에서 다루야 할 내용이네요. 자, 이거 좀 닦고 올게요.

이제 데이비드 흄의 인식론과 스코틀랜드 실재론의 반응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혹은 어찌면 머릿속을 가득 채웠을 질문 중 하나는, 흄이 관념론, 즉 표상론적 인식론에서 도출한 회의주의적 결론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회의주의는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결과일까요? 그리고 흄의 신념심리학만이 그러한 궁극적인 결론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까요? 그의 신념심리학이 유일한 탈출구일까요? 흄 이후 사상에서 발전된 다섯 가지 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식론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그중 하나는 분명 흄의 이론입니다. 즉, 믿음에 대한 실용적 근거를 가진 믿음의 심리학입니다.

다시 말해, 믿기 쉬운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믿기 쉽습니다. 사실, 감정이 본래의 흐름을 따른다면,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념의 심리학을 따라가다 보면 일종의 실용주의가 나타납니다. 실용주의로 이어지거나 실용주의와 병행하는 신념의 심리학이죠. 제가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은 여러 명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그의 에세이 '믿으려는 의지'를 접해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접해보지 못하셨더라도, 아마 접하게 되실 겁니다. 언젠가.

그는 간단히 말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 어느 한쪽 편을 명확하게 뒷받침하는 증거나 주장이 없을 경우, 감정적인 근거에 따라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감정적이라는 것은 흄의 의미에서, 즉 비인지적인 근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결국 개인의 심리적 구성 요소의 결과물이 된다. 제임스가 말하는 심리적 구성 요소가 보편적인 것인지 상대적인 것인지는 전혀 분명하지 않다. 어떤 에세이에서는 전자를, 어떤 에세이에서는 후자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적어도 믿음은 심리적 구성 요소의 함수입니다. 실용주의적 접근 방식이죠. 윌리엄 제임스보다 앞선, 그리고 덜 실용적인 믿음의 심리학을 제시한 인물로는 존 헨리 뉴먼이 있습니다.

19세기 옥스퍼드에서 누가 '승천을 위한 문법'이라는 책을 썼을 까요 ?

제가 알기로는 아직 출판 중인 페이지백 판본은 '상승의 문법(A Grammar of Ascent)'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저자는 확신과 확실성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확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확실성과 확신. 여기서 확실성은 논리적 확실성과 증명적 확실성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확신은 심리적 확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그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확신보다는 심리적 확신을 옹호합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접근 방식인데, 다소 실용적인 관점의 믿음 심리학입니다.

믿음들이 있다는 견해. 심리적으로, 그것들은 피할 수 없다. 논리적으로는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심리적으로는 피할 수 없다.

이제 여러분은 스코틀랜드 실재론자들뿐만 아니라 후대의 많은 실재론자들에게서도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외부 세계, 즉 물질적인 것들의 실재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비소 한 잔을 건네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라는 식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불신은 그들이 실제로 믿고 살아가는 불신이 아닙니다. 조지 무어는 한때 시간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던 한 스코틀랜드 이상주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강연 전에 아침을 먹었다고 말했을 때, 그는 전혀 진심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분명히 언어와 행동의 실용적인 특성상 우리는 그 과정에서 특정한 확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로는 부정하면서 행동으로는 확언하는 것은 모순적인 일 이죠.

그래서 실용주의는 실제적인 차원, 즉 현실에서 불가피한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분명한 대안은 표상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데카르트와 로크의 견해를 아시겠지만, 그 견해에 따르면 우리의 사유의 직접적인 대상은 단순히 관념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 이외의 어떤 것을 언급하고 싶다면, 그것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관념이 우리를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생각은 표상론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은 표상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종의 직접적인 자각, 직접적인 실재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실재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스코틀랜드 실재론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표상 론, 즉 관념론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직접적 실재론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대안은 관념론의 원자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로크와 흄은 둘 다 단순한 관념들이 우리에게 하나씩, 은밀하게 들어온다고 주장합니다. 뻘. 뻘.

뻘. 그리고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복잡한 아이디어를 즉시 인지하지 못합니다.

흄에 따르면 우리는 인과관계처럼 정당화할 수 없는 연상 원리에 의해 결합을 합니다. 이해되지요? 자, 분명히 한 가지 대안은 개별적인 관념들의 원자론을 거부하고 경험은 일련의 개별적인 행동 자극이라기보다는 계슈탈트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보시 다시피, 구조화된 전체입니다. 구조화된 전체 말이죠 .

당신은 계슈탈트 심리학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으니, 조건화라는 측면에서 경험적 증거가 원자론적 관점보다는 계슈탈트 심리학적 관점을 확실히 지지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 즉, 관념의 원자론을 거부하는 것이죠. 따라서 당신은 우리가 원자론적 구성 요소뿐 아니라 전체 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인과관계와 같은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현실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 가지 길 모두를 택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아주 분명하게 명목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흄과 버클리의 명목론 말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록헤드와 같은 개념주의로 돌아가 보자면, 우리는 실체, 공간, 시간 등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을 실제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전체적인 개념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데, 이 체계 는 비록 구성 요소 개념들 중 일부는 직접적인 경험적 근거가 없을지라도, 전체적인 체계로서 경험적 근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향은 스코틀랜드 사실주의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후대 사상가들처럼 노골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요. 화이트헤드에 이르러서는 그 경향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참고로 임마누엘 칸트에게서도 그런 경향이 조금 느껴지고, 헤겔에게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안, 즉 다섯 번째는 경험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사실적 지식이 경험에서 나온다는 주장을 거부하는 것이죠.

경험주의를 거부하는 것.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선형적 원리를 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조적 원리, 범주. 아니면 플라톤처럼 선천적 관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칸트도 그런 방향을 택했습니다.

칸트는 경험적 정보에 더해 선형적 원리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물론, 칸트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을지는, 아마 이번 주말쯤에나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칸트가 선형적 원리를 도입하는 방식이 흄의 방식보다 나은 점이 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칸트의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건지에 따라 다르겠죠. 윤리학을 말하는 거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시공간 세계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라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또 다른 대안입니다. 따라서 데이비드 흄의 인식론에는 다른 대안들이 있습니다. 그의 인식론 외에도, 실용주의적 인식론 의 다른 변형들이 존재합니다 .

그리고 다른 네 가지 종류도 있습니다. 우리는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이 다섯 가지 종류를 모두 접하게 될 것입니다.